

# 나경원 “과거 당내 경선 의외 현상”

‘선거 브로커’ 의혹을 사는 명태균 씨 논란이 여권 전체를 흔드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2021년 6월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당권을 가져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고 명씨도 연루설을 부인했다.

나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명태균의 말대로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과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 현상의 연속이었다”며 “이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당대회 초반에 역시 여유 있는 1위였는데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이 7번이나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했다. 참 기이한 일이다.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가 전당대회 기간에 있었던 건 유일무이했다”며 “특히 이 후보가 나를 무려 5%나 이기는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여론조사기관이 보냈다. 이후 몇 번의 조사와 기사는 눈덩이처럼 이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했다.

나 의원은 “당시 여론조사 중 2021년 5월 22일자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3.3%인데 단 1시간 50분 만에 표집됐다고 하니 의아하지 않은가”라며 “난 참 이상하다고 생각만 했고 후에 명씨가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다. 패자로서 깔끔하게 승복했지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부정선거론자가 되는 초기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오른쪽부터) 나경원·이준석·주호영 후보가 서울 마포구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100분 토론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1 전대·서울시장 경선 의혹”... 명태균 개입 논란 큰 파장 이준석 “부정선거론자 증세... 내가 1등한 조사 수두룩” 일축

중세다. 전당대회 지고 3년 동안 얼마나 이런 소리를 하고 싶으셨겠냐”며 “그때 조사 결과만 봐도 제가 1등하는 조사가 수두룩했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 40회가 넘는 조사가 이뤄졌다. 추세에서 벗어난 조작된 조사 하나만 짚어서 대 보세요. 없잖ಾಯ아”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선거 전에 일어난 비정상적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이다. 단 몇 시간에 불과한 여론조사 시간과 편중된 성별 비율 등을 확인해 보라”고 재반박했다.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의혹의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 의뢰로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6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5월 16일 조사의 경우 20대 남성 응

답자가 73.4%로 여성(26.6%)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에서 나 의원은 15.5%·이 의원은 20.4%를 기록했다(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시 이 의원은 젠더 갈등을 통해 2030 남성 표심을 집중 공략하던 때였다.

다만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와의 연루설을 부인 중이다. 그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제 소유 회사가 아닌데 실질적 운영 등을 포함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보도(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jhoh@skyedaily.com

# 민생없는 ‘김건희·이재명 국감’

## 2024 국정감사

국회가 14일부터 2주 차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국감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각각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정치 공방에 집중하면서 국정감사의 본질인 민생과 정책 관련 질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김 여사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된 불기소 결정 역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안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법안카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추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또한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들이 군 주요 직책에 중용되었다는 ‘충암파’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와 보도 편향성 논란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과 함께 가스선 시추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정치 공방에 집중하면서, 민생과 정책 관련 질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 국감을 지향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16일 재보궐선거 결과도 여야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 기자jeb@skyedaily.com

## 만평 화필살인(畫筆殺人)



# 10.16 재보선 최종 사전투표율 8.98%

## 77만5971명 사전투표 참여 영광 43.06%로 가장 높아

10.16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8.98%로 집계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5개 선거구의 선거인 864만5180명 중 77만 5971명이 11·12일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재보선 대상은 △전남 영광 △전남 곡성 △인천 강화 등 3곳의 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및 서울시교육감이다. 곡성군수 재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은

41.44%로 집계됐다. 영광군수는 43.06%로 5곳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강화군수는 27.9%다.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금정구청장은 20.63%의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동시에 부산에 출격해 선거 지원에 나섰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패륜적 행태가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 달라”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금정구청장 재보선을 두고 “혈세 낭비”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금정구청장

재보선은 고(故) 김재윤 전 구청장이 6월 별세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고인·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아직도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8.28%로 유일하게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번 재보선 본투표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오주환 기자jhoh@skyedaily.com

연도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수	사전투표율	최종투표율
2014	7·30 재보궐 (16)	7.98	32.9
	10·29 보궐 (2)		19.40
2015	4·29 재보궐 (12)	6.74	32.6
	10·28 재보궐 (24)	3.58	20.1
2017	4·12 재보궐 (30)	5.90	28.6
2019	4·3 보궐 (5)	14.37	48.0
2021	4·7 보궐 (21)	20.54	55.5
2023	4·5 보궐 (9)	11.01	27.2
	10·11 보궐 (1)	22.64	48.7%
2024	10·16 재보궐 (5곳)	8.98%	

※사전투표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 임기만료선거 등 실시한 재·보궐선거 제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